

# 4월 활동 보고서

찬수 · 수정  
준성 · 지원의 이야기

그 단원이 알고 싶다!

2개월간 생활하며 우리가 본  
우리의 모습 **완전해부!!**

★★  
4월 이벤트

BANGUS FESTIVAL  
JIMM'S BIRTHDAY  
HOMESTAY



RaonAtti

RAONATTI 13<sup>th</sup> Philippines Pangasinan YMCA, 2015.04.01~2015.04.30

# 목차

- 4월 활동달력
- 우리소개
- 우리활동
  - 살라핑가오(SALAPINGAO)
  - 푸가로(PUGARO)
  - 덤프사이트(DUMPSITE)
  - LANGUAGE CLASS
- 홈스테이
- BANGUS FESTIVAL
- 그 외 아띠이야기
- 에세이

# 04. 201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REST DAY

**2**  
HOMESTAY

**3**  
HOMESTAY

**4**  
HOMESTAY

**5**  
HOMESTAY

**6**  
DUMPSITE  
ENGLISH CLASS

**7**  
DUMPSITE  
TAGALOG CLASS

**8**  
REST DAY  
CLEANING DAY

**9**  
SALAPINGAO  
ENGLISH CLASS

**10**  
PUGARO  
TAGALOG CLASS

**11**  
SALAPINGAO  
KOREAN CLASS

**12**  
REST DAY

**13**  
DUMPSITE  
ENGLISH CLASS

**14**  
DUMPSITE  
TAGALOG CLASS

**15**  
REST DAY

**16**  
SALAPINGAO

**17**  
PUGARO  
GATN

**18**  
GATN

**19**  
GATN

**20**  
DUMPSITE

**21**  
DUMPSITE

**22**  
REST DAY  
FOOD  
TEST(BANGUSINE)

**23**  
PUGARO

**24**  
PUGARO

**25**  
SALAPINGAO  
SWIMMING

**26**  
REST DAY

**27**  
BANGUSINE

**28**  
DUMPSITE  
(POTLOCK)

**29**  
REST DAY

**30**  
VISA EXTANTION





# 우리소개



이름 : 채지원 Juana(꾸~우아나)

별명 : 파괴의 神

싫어하는 것 : 개미

좋아하는 것 : 노래 한 곡만 듣기, 시 쓰기, 바나나

• 특징 : 바나나 한 송이를 한끼에 모두 해치우는 원숭이 못지 않은 바나나 Holic. 가끔 그녀가 먹어 치우는 바나나 껍질에 오빠들을 놀라게 하지만, 오빠들을 위한 바나나 한송이 짬 남길 줄 아는 매너 있는 막내. 말이 안 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That's Ok란 말을 달고사는 긍정의 열매 복용자. 늘 상하는 유체이탈 화법과 짠 소리로 늘 권준성 단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맡아 할 일을 찾고 책임지는 든든하고 귀여운 평가시난 팀의 막내.

• 4월 가장 많이 한 이야기

That's Ok???

That's Ok! That's Ok~~~~

GOOD! Magarling~~

“내~~~~”(으로 시작해 지난 날의 수상경력과 K-POP 춤 실력 어필)

• 4월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그건 아니고”

“할튼~~~ 채지원”

“무리수다 무리수”.

4월 파괴 및 손괴 현황 : 현관 자물쇠 1회 파손, 화장실 문 1회 잠금 및 1회 화장실 간힘, 변기 막음 1회, 변기 물 내리는 부분 1회 파손, 컵 손잡이 3개 파손, 남심 1회 파손.



채지원 JUANA

이름 : 권준성 Santiago (산차고)

별명 : 아저씨

싫어하는 것 : 살생, 시니강

좋아하는 것 : 반딧살

• 특징 : 항상 빵잇 포즈로 사진 찍을 때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잘하는 오빠. 바디클렌저, 샴푸, 폼클렌징 심지어 빨래 비누까지 한 비누로 통일 시켜버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대충男. 늘 헝클어져 있는 머리와 씻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평가시난의 거지로 살고 있음. 항상 팀원들을 잘 놀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잘 건네지 않는 무심한 오빠지만 늘 팀원 들을 위해 안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팀원들을 챙기는 알고 보면 가슴 따뜻한 남자.

• 4월 가장 많은 들은 이야기

아 오빠 머리 좀 잘라. 뒷머리는 진짜 심해~~

이 오빠야가 진짜!!~~~

준성 오늘 한잔 할터?

• 4월 가장 많이 한 이야기

내가 여기서 누가 있다고 꾸미고 다니냐 대충 다니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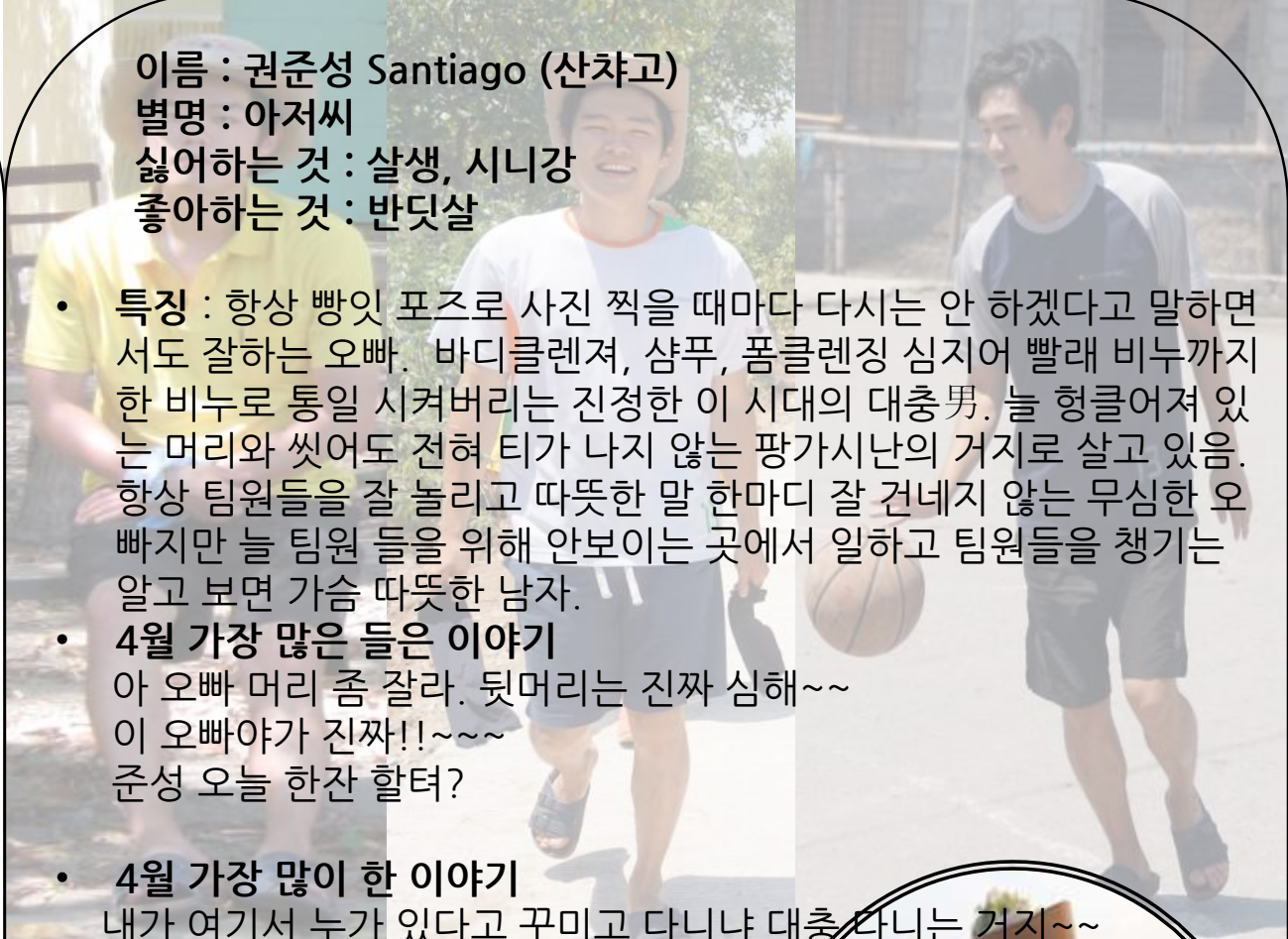
대충 다 때려 박으면 된다고

하~~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 4월 분실 일지

팀폰 분실 2회(지프니, 삐갈삐갈에서 놓고옴 누군가 챙겨줌),

USB 분실, 지삭 시계분실, 멘탈분실 1회



권준성 SANTIAGO



이름 : 임수정 conchita(콘치타)  
 별명 : 하선정씨(김치공장아줌마)  
 싫어하는 것 : 고양이, 쥐, 개미  
 (고양이 때문에 1회 눈물, 쥐에 3회 식욕감퇴)  
 좋아하는 것 : 회의, 아이스크림, 보고서 쓰기

• 특징 : 항상 회의를 소집하고 요구하는 회의 중독자. 해야 할 일 앞에서는 한 없이 냉정 해지려 하며 라온아띠 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려 노력하지만 아이스크림 앞에서는 한없이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 Holic. 팀원들의 (틀린 의견 다른 의견이 아닌) 틀린 의견에는 가차 없이 '그건 아니고'를 외치는 차가운 평가시난의 도시여이지만 입맛이 없는 팀원들을 위해 모두가 잠든 새벽 김치를 담그는 따뜻한 엄마 같은 여자.

• 4월 가장 많이 한 이야기  
 '오늘 우리 회의 좀 길게 해야 할 거 같아..'  
 '오늘은 좀 제대로(확실히) 회의 해보자'  
 '살라맛뽕하지'

• 4월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아! 김수정 진짜~~!"  
 "수정이 또 이(치아)보이게 웃는다"  
 "언니~~~~~"

• 4월 질병사항 : 소화불량 多(특히 Pigar Pigar에 갈 때 마다 속이 안 좋아 Pigar Pigar을 안좋아함). 목소리 나감 多(아침마다 박완규 목소리를 시전 팀원들을 놀라게함), 눈충혈, 변비



임수정 CONCHITA

이름 : 박찬수 Juan(꾸~우안)  
 별명 : 조연 男  
 싫어하는 것 : 회의, 요리, 주인공되기  
 좋아하는 것 : 햄버거, 혼자 산책하기, 은둔하기, 서포팅 하기(조연역할 충실하기), 남은 시간 세기(달력에 X 표 치기)

• 특징 : 주연이 되기보다는 조연이 되기 원하는 이 시대 최고의 조연, 서포터. (가끔 모두가 주연이 되어주길 원하지만 한사코 거절. 3월의 보고서처럼 살고 있음). 박 조연 단원의 서포팅 실력은 모든 팀원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함. 겉보기에 허술해 보이고 회의를 싫어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늘 다른 팀원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고 챙길 줄 아는 알고 보면 완벽한 우리 팀의 말형.

• 4월 가장 많이 한 이야기  
 오늘 회의는 여기 까지만(간단하게) 하자^^  
 살라맛뽕는 오늘 쉬자^^  
 아~~~나중에 얼마나 이때가 그리울까~~ (1분후) 아 !! xxxx

• 4월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형~~화난거 아니지??? 형~~괜 찮은겨??  
 오빠야 과안나~~~~  
 아니 이 오빠가!

• 4월 감정 변동 일지  
 행복-분노-행복-분노-행복-분노-지침-행복-행복-시간이-빨리 간다는 두려움, 아쉬움-행복-분노-행복-분노-재밌음-재미없음-재밌음-재미없음-행복



박찬수 JUAN



#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우리집 스펙

위치 : DAGUPAN시 TAPUAC 거리 MCM 빌딩

Y까지 걸리는 시간 : 2분

장점 : Y와 가까움.  
단점 : Y와 가까움

화장실 개수 : 2개

거주인 : 찬수 준성 수정 지원

거주인 外 : 아기 바퀴벌레, 성인 바퀴벌레, 도마뱀, 냐옹이(名 잭 슌, 네오, 그레이 외 多 집 앞 상주), 각종 개미

방 개수 : 2개(여자방, 남자방)



WELCOME TO FIRST FLOOR

1. 항상 깨끗하고 독서의 열기가 가득한 거실
2. 마사랍 테이블
3. 지원이의 해우소(주로 여 단원들이 쓰는 1층 화장실)
4. 태극기가 달린 천국의 계단
5. 바퀴벌레와의 한판승부가 펼쳐지는 아레나 (다용도실)
6. 열띤 나눔이 열리는 쾌적한 나눔 테이블



행복한 아띠 하우스로 오세요~~~~



# 남자의 방

남자의 방을 소개합니다.

1. 행거 : 행복한 거동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빨랫줄(1층까지 빨래를 널 필요가 없음)

2. 수납이 : 우리의 모든 물품이 들어가는 수납공간 유용 유용

3. 엘사 : 창이 없는 남자 방을 겨울로 만들어 주는 성실한 엘사.

4. 힐러(박기량): 윤도원 (13기 인도팀 90년생) 단원이 출국 전 건네준 힐링 비책





## 여자의 방



conchita(콘치타) & Juana(꾸~우아나)  
그녀들의 비밀공간을 소개합니다.

많은 창들 덕분에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불어오는  
밝은 기운이 가득한 방

Ymca와 마주하고 있어 소통의 공간이다.  
Ymca친구들이 음악을 틀면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

♡ 콘치타의 주요활동: 소설읽기. 저널쓰기.  
음악듣기. 잠자기

♡ 꾸~우아나의 주요활동: 사전읽기. 음악듣기.  
노래 부르기. 글쓰기. 잠자기



# 우리활동







# 살라핑가오 (SALAPINGG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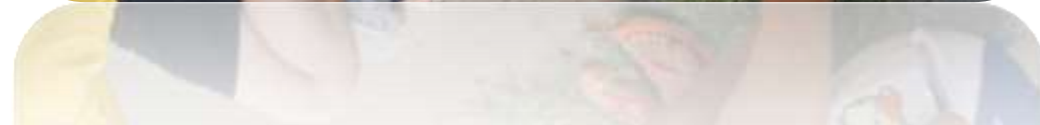




## 첫 만남이 시작 되다!

4월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청년과의 만남이 시작 되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한국 게임인 '팅팅탱탱'을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며 서로의 이름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 후에는 그룹별로 나누어져 진솔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유대감을 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아띠들은 배구, 2인3각 등 간단한 게임을 그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마을 둘러보기

3번째 만남부터 Raonatti 소개와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마을의 지키고 싶은 모습, 개선하고 싶은 모습을 찾는 '마을 알기 활동' 를 함께 진행하였다.



## 마을 둘러보기 결과

활동 결과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쓰레기를 주제로 한 환경 캠페인과, 마을 정화활동 등을 청년들과 함께 펼칠 계획이다.







SANTIAGO

개인적으로 3개의 사이트 중 가장 힘들다. 방문 할 때마다 청년들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약간의 힘겨움을 느낀다. 본래 청년들과의 만남을 계획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는데...흠 5월부터는 부담감을 줄이고 더 즐겨야겠다.

청년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설레었던 첫 순간 첫 만남.

그 기대감도 잠시 매주 그들과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놀고 오는 것만으로도 교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 함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JUANA



JUAN

살라핑가오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것 이것들만을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어렵지만 다음달이 기대되고 또 기대된다.

살라핑가오를 가는 발걸음이 활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점점 가볍지만은 않아진다.

이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진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좀더 멀리 바라보며 앞으로의 만남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에게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해주지 못해도 우리를 여전히 기대해주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고맙고 힘이 된다.



CONCHITA





4월 살라핑가오에서





4월 살라핑가오에서



A group of people are gathered under a large, open-sided structure with a thatched roof made of palm fronds. The structure is supported by wooden poles. In the foreground, a man in a white shirt and a hat is crouching, and a young boy in a light blue shirt stands next to him. In the middle ground, a woman in a dark vest and a wide-brimmed hat is walking and holding a green container. To her right, a woman in a yellow shirt and dark pants is walking. On the far right, a man in a yellow polo shirt and black shorts stands with his hands on his hips. The ground is dirt and concrete. In the background, there are trees, a fence, and a building with a sign. The sky is blue with some clouds.

# 푸가로 (PUGARO)





## 그린 하우스 짓기

**걱정**보다는 차질 없이 그린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전 기수의 그린하우스를 허물어(12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나무 조율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큰 기둥 4개를 세워놓은 상태이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하우스가 지어진 후 모종을 구입해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우리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CONCHITA

푸가로의 그린하우스는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린하우스를 짓는 것이 우리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모종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통해 푸가로 마을 사람들과도 즐겁게 만나고 싶다. 우리를 궁금해하는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처음으로 그린하우스를 시작한 4월.

선명하게 무언가를 했다고 보여주기도, 말하기도 부족하지만 고민에 비해 하나 하나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만의 활동이 아닌 푸가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JUANA



JUAN

한 달 동안 몸을 많이 쓰는 한 달이었다. 공사를 하고 필요한 부자재들을 옮기고 오히려 맘 편히 활동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린하우스를 잘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생각보다 순조롭다. 몸을 쓰니 오히려 생각이 없어 지고 편해지는 느낌이다.

다음달은 좀더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 팀원들과 상의해봐야겠다.



SANTIAGO





4월 푸가로에서





4월 푸가로에서





덤프사이트(DUMPSITE)





ATTI KLASSE

## 아띠클라세 시작되다!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간단한 몸 놀이로 본격적인 아띠 클라세를 운영하였고, 수업 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1,2주차 활동을 거쳐 **분반**의 필요성을 느껴 분반을 실행하였고 고학년 아이들의 집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5월에는 미술, 체육수업 등 아이들의 못해본 실습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HOUSE TO HOUSE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 우리 이야기를 먼저 하자는 취지로 4월 부터 가족 사진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준비하여 HOUSE TO HOUSE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4월 마지막 주에 있을 POTLUCK에 대한 홍보를 전단을 만들어 홍보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생각보다 사진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HOT 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4월의 POTLUCK!

불고기, 화채, 김밥을 준비하여 POTLUCK 파티를 진행하였다  
POTLUCK의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한달 간 HOUSE TO HOUSE  
를 하며 전단 및 취지를 설명하였지만, 한 가구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아 조금  
은 당황하였다.

아띠들은 POTLUCK이 끝난 후 긴 회의를 거쳐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하였다.

## 5월의 POTLUCK

5월 에는 음식을 각자의 접시에 담아 주는 방식을 바꿔 가족단위로 배  
식하기로 하였으며, 마을 잔치답게 가족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주민들  
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생각이다. 또한 음식을 가져오는 일  
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신의 가족이 먹을 밥만 가져오  
게 하는 방식으로 POTLUCK을 진행할 것이다.





## 아띠들의 한마디

사진한방만 같이 찍어주라.. 저기 봐 저기



Santiago (25) 로스비아 짝 사랑중

덤프사이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이 간다.  
4월 한달 간 아띠클라세와 우리들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젝트 준비에 힘들었지만 웃는 아이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역주민들이 있어 힘이 났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로스비아의 초점 없는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떠오른다.  
보고 싶다.

갈 때마다 기대 된다 설렌다.

덤프사이트 친구들과 내가 가까워 질 수 있을까?  
가능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던 내가 덤프사이트 친구들이 보고싶고 그리워진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힐링을 하고 돌아간다. 보고싶다~ 친구들아

자~~알 들노네~



Juan(26) 메리조이와 연애중





JUANA

나는 요즘 내가 사는 이 곳에서 익숙함을 느끼는 것처럼 덤프사이트에서도 좋은 익숙함. 좋은 향기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 같다. 아이들과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꼭 안으며 인사를 하고.

비록 간단한 단어로 이야기하며 안부를 묻지만 눈빛으로 체온으로 모든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웃음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과 주민들과 함께 웃고 상처에 함께 아프기도 하고 점점 끈끈하고도 사랑의 마음이 커져만 간다.

보조개가 같으며 나를 보며 환하게 웃음지어주시는 롤라,  
쑥스러운 듯 조용히 다가와 나를 챙겨주던 청년들,  
이제는 나에게 안기는 것이 익숙한 듯 달려와 안아주는 아이들.  
점점 나에게 더 많은 웃음을 짓게 하는 것들이 생겨난다.

이제 내 집인마냥 아이들 집에 찾아가고, 어린애 같이 애들과 놀며  
더 이상 내가 덤프사이트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싶다.



CONCHITA





4월 덤프사이트에서





4월 천사들





# 언어수업 (languag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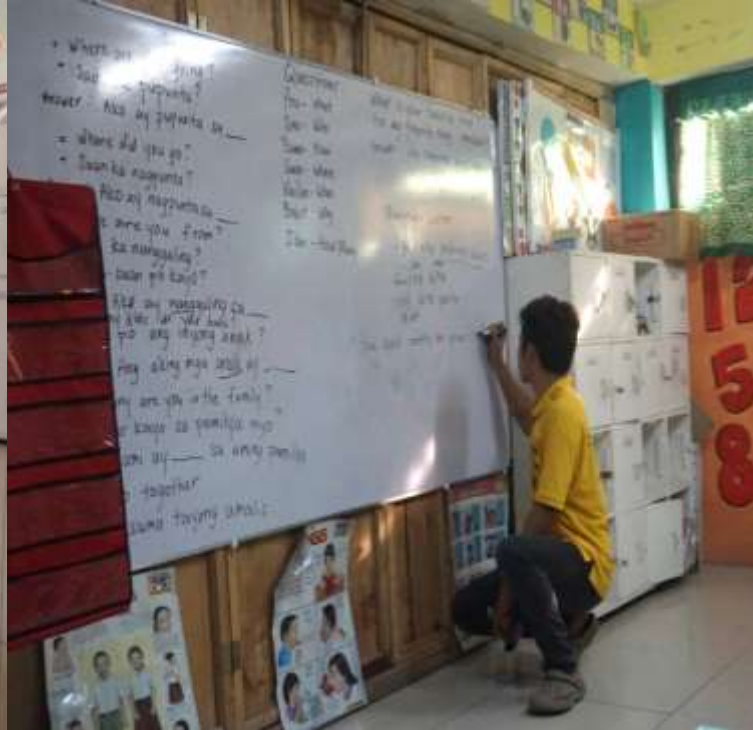
마미 줄리와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주로 단어를 주시고 문장을 만들며 영어를 배웠으며 영어 기초가 부족한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셨다.

마미 줄리의 빈자리는 우리 코디네이터인 롤리가 채워주었다. 롤리와 함께 Volunteering, Volunteerism, Volunteer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계획되어 있지만 유동적으로 수업이 변경되었고, BANGUSINE의 준비로 인해 4월 말에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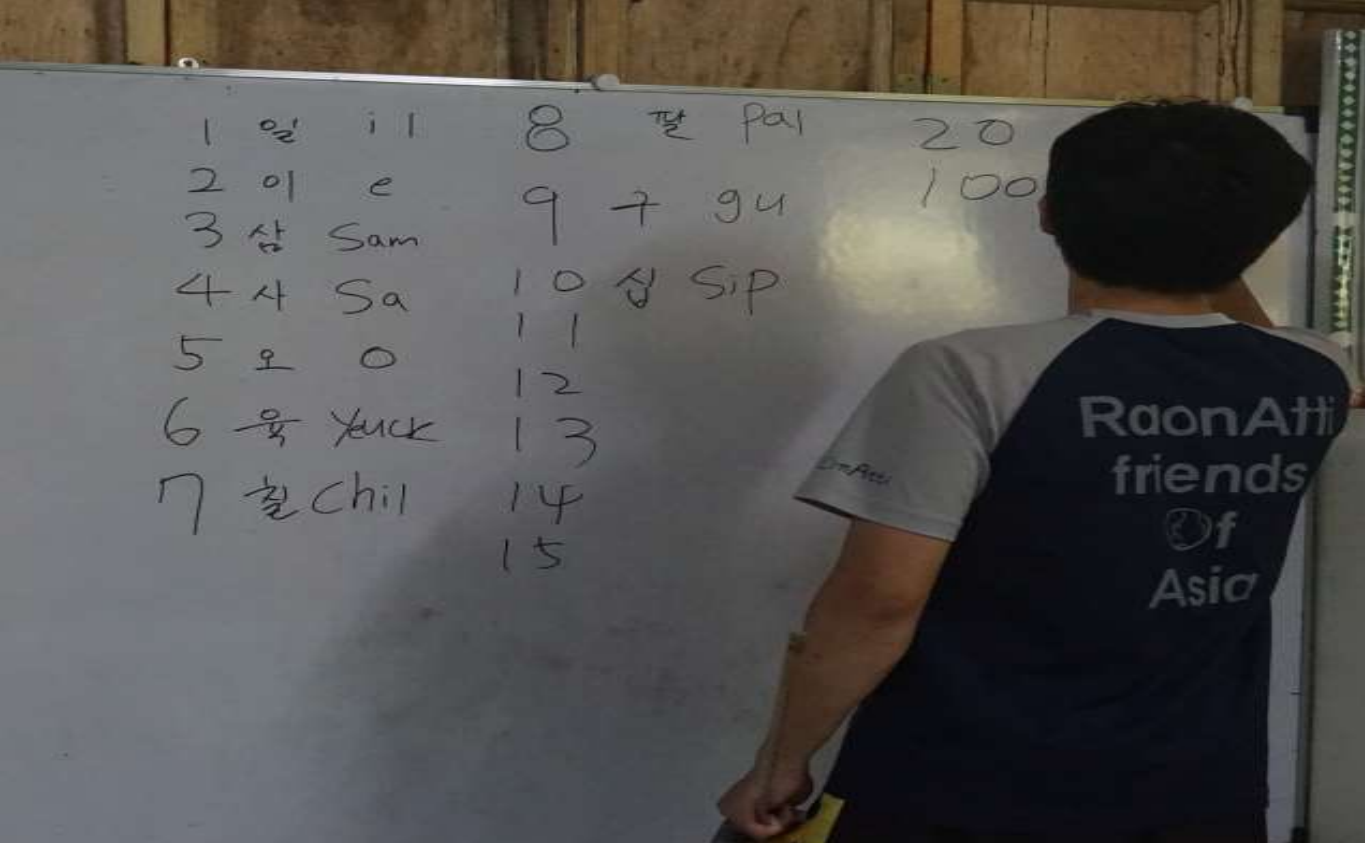
Melvin과의 따갈로그 수업은 간단한 질의응답의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가 원하는 문장들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롤리와 그의 따갈로그수업은 복습부터 시작해 전에 배운 내용들을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방향지시 및 날짜, 문장구조를 배우며 간단한 문장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다.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가르쳤던 멜빈. 엄격하게 가르쳐주지만 잘했다는 칭찬을 빼놓지 않는 롤리. 어린애들처럼 잘했다는 도장을 받으며 좋아했던 우리들, 수업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며 시계를 바라보고 그만하자고 조르기도 하며 학창시절로 돌아간듯한 우리들이 점차 재미있게 따갈로그를 배워가고 있다.





4월 한 달 한국어 수업은 한 번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어 수업은 매번 유동적으로 오는 학생들을 배려해 복습으로 자기소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가르쳤고, 숫자를 가르쳐주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빨랐고, 숫자를 주어주고 그 숫자를 말해보는 퀴즈에서도 잘 해주어 많이 놀라웠다.

이번 한 달 한국어 수업은 4월 다른 일정들의 준비로 인해 매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앞으로 5월 한국어 수업은 좀 더 알차게 준비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다.







**홈스테이** 2015.04.02~04.05





TEDDY · JUAN



LYN · CONCHITA



KYM · JUANA



ROLLY · SANTIAGO



# 테디 그리고 가족들





# 테디 그리고 이웃들





## 〈홈스테이 그리고 지금〉

홈스테이를 통해.. 태디라는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ymca 밖으로 단둘이 나갔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만났다. 함께 밥을 먹었으며 함께 카드게임을 하였고 함께 웃었고 함께 걸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태디의 친구로 홈스테이를 함께 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받았다.

아직도 태디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그 때의 나.. 그 기억들을 잊고 싶지 않고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고 나! 정말 행복했다고 태디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멋진 친구 태디에게 전하고 싶다. 고맙다... 정말정말 고맙다고





# 짧게만 느껴졌던 3박 4일간 SITA의 홈스테이

2015.04.02~2015.04.05





## 린네 집에서

팡가시난 다구판에서 바기오까지 3시간을 가는 동안 피곤한 줄 모르고, 태양빛이 뜨거운지 모르고 창 밖을 바라봤다. 창 밖에 세상은 자연의 경이로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고,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로 온 것만 같았다. 다구판과 다르게 정신 없는 트라이시클이 없었고, 다구판의 무더위도 더 이상 없었다. 한글간판이 종종 눈에 보이고 한국말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설렘이 가득 찼다.

홈스테이 내내 언제나 린과 함께 했고 우리 둘은 이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된 마냥 편안했다.

홈스테이가 지나고 난 지금  
처음과 달리 낯가리지 않고 무한 뽀뽀를 해주던 카를로스, 같이 매일 운동했던 부용이, 일하고 늦게 들어와도 나와 이야기를 하던 조이, 무엇 하나 불편할까 신경 써준 린,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던 나나이, 무뚝뚝하지만 계속 나를 지켜 보시던 타타이, 수줍은 듯 나에게 다가왔던 트리샤가 보고싶다.

바기오에서 나는 그저 바기오에 놀러온 린의 친구로 좀 더 바기오에 머물고 싶었다.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 하루의 기억이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 • 일상 속에 물들고 싶었던, 나!

잘 먹는 것 하나는 자신 있던 나!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자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건 우리집과 같았다.  
요리 솜씨가 좋은 나나 덕분에 항상 맛있는 밥이 차려졌고, 카인나~ 망안~ 잇몰~ 이라는 소리에 배불러도 한 끼에 세 네 그릇씩 먹어야만 했다. 나 또한 이제는 부용이에게 망안을 외치고 있었다.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내가 못 먹는 음식들도 처음으로 눈 딱! 감고 먹어봤다.

하루의 시작을 같이하고 하루의 끝을 같이 하는 것.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아침마다 반복되는 추위에 이불을 끄끄 따매고 일어나야지 생각하다 동생들을 깨운다.  
나는 린의 가족에서 큰 누나, 큰 언니가 되었다.  
대학교 방학을 맞아 피쉬 마켓에서 일을 하는 조이는 이른 시간에 나가 밤 9시 10시에 돌아왔다. 대부분 이른 저녁에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일찍 자는 이곳에서 조이는 가족 중 가장 늦게 들어오는 편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조이를 기다리고 조이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느낌으로 서로 느낄 수 있었다.  
진짜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밥을 준비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돕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린의 가족에게 내가 조금은 그들의 일상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 린할아버지 집에서

나나이와 부용, 린과 함께 팡가시난 바시스타로 향했다.  
다시 무더위가 시작됐고,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이 마을에 도착했다.  
바기오의 태풍을 운 좋게 피해온 것처럼 이곳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홀리데이를 맞아 온 가족들이 할아버지네로 모두 모였다.  
노래 소리가 흘러 나오는 집. 아이들로 북적이는 이 집.

이곳을 나는 하루에도 몇 번 둘러봤다.  
언제나 나와 함께해준 린, 부용이, 마크마크, 브랜다.  
뜨거운 장작불에 땀 흘리며 요리하시던 나나이.  
저 나무가 뭐냐고 묻는 내게  
집 앞마당에 있는 과일을 따주겠다고 나무를 타준 아이들.  
정말 해맑고 귀여웠던 아기들. 나를 언제나 챙겨주시던 어른들.

나는 정말 평화로웠다.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며 그저 나도 멀리서 오랜만에 온 가족 같았다.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느낀 이 감정들이 오랫동안 기억되어 남기를  
정말 다시 다음에 이곳에 돌아갈 수 있기를  
여유롭다는 말이 평화롭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이 바시스타 마을이  
정말 내게 좋았다.





# 일년에 한 번 온다는 홀리데이 토요일은 바라가이 페스티벌!

마을을 둘러보는데 5분도 채 안 걸리는 작은 마을이 들썩이고 있었다. 수줍은 소녀들은 댄스연습에 박차를 가했고, 다들 Guapo, Maganda로 변신하고 있었다. (Guapo, Maganda; 멋지고, 예쁘게)

토요일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계속되는 이 페스티벌의 핵심은 바로 “댄스” 남자가 춤추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다는 이곳에서 나는 4명과 함께 춤을 췄다. 다양한 볼거리와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한 린 친척들, 친구들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달래며 집에 돌아왔다. 내 아쉬움 만큼 이 작은 마을이 밤새 노래로 가득 찼고 그 노래들이 내게 자장가가 되고 나를 깨우는 알람 소리가 되어주며 끝이 났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줍어서 내게 말도 못 걸던 린 사촌들이 술에 힘을 빌렸는지 용기를 내고 있었다. 수줍음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었고, 그 얘기를 들은 내가 나도 못한다고 용기를 주고 있었다. 영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던 나였는데 참 웃긴 일이다.

린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Salamat po 를 외쳤다! (Salamat po; 감사합니다.) 이곳에 왔으면 해볼 수 있는 거 해보아야지 라며 돈을 내주신 할아버지 덕분에 밖에서 보지 않아도 됐다. 이런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할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하다. 다시 꼭 오라고 하셨던 말씀을 내가 지키는 날이 오길 기도해야겠다.





## Tiago와 아이들

롤리의 동네에 들어서자 들었던 첫째 생각은 '평화롭다'였다. 평화로웠다.

위험하게 지나다니는 트라이시클도 지프니도 없을 뿐더러 오후여서 사람들이 없었기에 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물론 이 평화가 오래가진 못했다. 곧 롤리의 친척 동생부터 팔촌에 사촌까지? 이름을 체 외우지도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내 손을 잡고 이리저리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디또 디또 there there로 시작된 동네 탐방은 3박 4일 간 이어졌고, 롤리 친척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나를 소개하거나 강가로 나를 데려가 물에 들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아침이면 나보다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나의 단잠을 깨우기도 우물가에서 샤워하는 나를 위해 펌프질을 해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큰일을 치르는 중에도 나를 찾아 오곤 했다.

너무나도 순수한 그들의 웃음은 날 웃음짓게 만들었고 무장해제 시켜 결국 알이 배기도록 그들을 안아주거나 던져 주어야 했었다.

즐거웠고, 사랑스러웠다.



## Tiago와 Rolly



롤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았다.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자기 전, 할게 없는 오후 시간에는 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했다.

별달리 할게 없는 롤리 마을에서 밤은 특히나 길다. 3박 4일간 밤이면 별보기를 가장한 볼놀이를 즐겼다.

쏟아 지는 하늘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별도 없는 하늘을 보며 아이들과 놀았으며, 공동 우물에서 함께 샤워를 하고 꿀잠을 잤다.

Galacio지역 탐방도 하였는데 300백년이 넘는 교회를 구경하였고 지역 특산물 격인 떡 '뿌또'를 먹었다.

Rolly란 친구가 필리핀인, 코디네이터가 아닌 온전히 Rolly란 사람자체로 보이는 순간을 경험했다.





## Tiago와 가족들



3박 4일간 정말 많은 롤리의 친척분들을 만났다.

죄송하지만 사실 롤리와 그들의 관계, 이름 외우기를 첫날 포기하고 말았다..

너무 많았다 한걸음을 디디면 사촌에 팔촌이라는 친척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롤리와 친척 관계라는 레이디린의 할머니, 동생 까지 많은 Ferrer(롤리 가족이름)家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3박 4일간 아이들과 친해진 것에 비해 어른 가족분 들에게 싹싹히 다가가지 못했다. 서로 부끄러워서 었을까 대학교를 다닌다는 롤리의 동생들 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다.

그래도 3박 4일간 손자의 친구, 사촌의 친구, 또 관계 모를 롤리의 친구로 처음 보는 낯선 한국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신 가족들에게 다들 감사 드린다.

뭔가를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편했으며 눈치보지 않았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





아 쉽지 않구나..



뛰어 보장!!!



Smile~~~



반딧살을 내려 주세요

Tiago의 홈스테이 한마디

친구네서 세 밤 자고 왔다.

홈스테이를 가는 내 마음 가짐은 단순 했다.  
'아 친구네서 3밤 신세지고 와야겠네'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 친구(롤리)네 집에 갔고, 친구의 가족이 차려주는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으며 친구의 동생들과 놀았고 친구가 허락한 동선 내에서만 움직이며 최대한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려 하지 않았다.

특별하게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없었다. 애초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배우러 간 곳이 아니었다. 그냥 롤리네 집이었다.

그래도 만약 내가 이번 기회로 배운 것이 있다면 롤리란 사람 이라고 답하고 싶다. 롤리의 가족, 롤리가 생활한 곳, 롤리의 친척 등을 보며 그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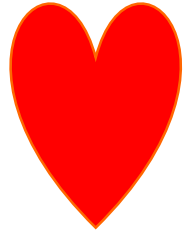
단 세 밤으로 그와 진정한 소통을 나누었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말은 아니다. 그냥 표현 할 수 없는 뭔가가 서로 통했고 그걸로 만족한다.



# Juana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떼(언니.누나) , 아만다(영어이름), 우아나(필리핀이름)

**아빠** : magic에 근무하시는 아빠!  
휴일이지만 출근하시느라 함께한 시간은  
많지 않지만 편하게 대해주심  
유쾌하시고 댄싱 머신 아빠  
(영상으로 확인)



**엄마**  
: 푸근하시고 마사람(맛있는)요리의 일인자(원  
하는 음식을 똑딱해주시م). 인자한 웃음이 아름다  
우심  
자주하시는 말:우아나~흐흐 땡큐우~~~



**Kym(킴)** : 든든한 라온아띠  
의 코디네이터이자 편한 친구  
1살 어리지만 10살 오빠  
같은 구와뽕(잘생김)얼굴과  
매력이 넘치는 킴!  
자주하는 말: 아만다 Okay?  
지이~~워~~나아~~  
Thank you~~^^  
gutom?(배고파?)

**Kate(케이트)**  
: 사랑스러운 동생! 제과  
에 관심이 많고 춤이면 춤!  
목소리도 사랑스러운 동생  
케이트



**Easing(이싱)**  
: 내 사랑인 이싱! 이싱의 꿈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꽃과 나무  
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걸 다 지켜  
보고 있는 이싱



**Juana(우아나)**  
: 우아~~~하진 않지만  
우와!!!!하며 감탄을 잘하며  
귀엽고 엉뚱한 매력의 우아나

**언니(Ate Kathleen)**  
: 따뜻한 마음과 늘빛의 소유자.  
항상 챙겨주시고 예뻐라 해주신 언니  
(언니는 소녀소녀♡)  
자주한 말: 우아나는 대구에  
살고 피부가 좋고 처음으로 필리핀에 왔고  
간호공부하고 한국가족이 4명이니!  
한국은 어떤 곳이야?  
- 나의 대부분의 신상을 다 외우심  
K-pop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심



**Kiehl(카일)**  
: 나의 친구! 티셔츠를 자주 입지 않음(수영  
을 해서 몸이 좋다고 함)- 확인  
연애에 대해 관심이 많고  
피부에 관해 고민이 많은 나의 친구 카일  
자주하는 말: 아떼 우아나~~~ 쿨트





## #첫재날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골목 골목을 지나  
평화로운 산하신토 마을에 위치한 김의 집에 도착했다.  
마당에서 나물을 다듬고 계시는 엄마와 사랑스런 목소리의 주인공 케이트와 인사를 나눴다.  
김의 옆 집에는 수 많은 친척 분들이 살고 계셨다.  
저녁이 되어서는 필리핀 휴일에 교회까지 가는 행사를 김과 구경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빠 옆에서 일기를 쓰고 별을 보기 위해 혼자 마당에 나왔다.  
별을 보며 나만의 감성에 빠지다가 살며시 이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만나 부끄러워하던 귀여운 이싱인데, 이싱은 나무와 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내 동생 이싱에 대해 알게되고 kym의 가족을 만난날!  
Kym의 가족이 궁금하다  
늦은 밤까지 이싱과 행복했던 시간들.  
이싱은 나의 마음을 가져갔다지.





## #둘째날

아침 이른 시간 엄마는 요리하고 아빠는 청소하셨다. 워킹을 하고 돌아온 카일과 아떼 카틀린, 마마, 대디와 함께한 아침식사 맛있는 수프와 반딧살. 이른아침 나무와 자연 속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시작했다. 카틀린 언니와 모닝차를 마시고 점심으로 마당에서 밥을 먹었다. 바나나 잎 위에 밥을 두고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아도보 깡뽕과 함께 손으로 똑딱 한 공기를 먹었다.

오후에 킴과 함께한 마을 여행!

교회. 강. 곳곳을 둘러보며 마을의 매력에 빠졌다.

킴과 함께한 모터사이클 시간이 많았다. 행복하고 달콤한 순간. 내일은 새벽 일찍 비치에 간다. 오늘 저녁은 케이트와 함께 꿈. 가족 한국. 마카롱. 케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낀건 킴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사랑이 많은 가족들에 내가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셋째날  
마지막 밤.

오늘은 새벽5시에 기상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비치로 출발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기억해주시고는 하루 하루 만들어 주셨다. 오늘은 뽕싹!  
수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는 뽕싹은 최고!!

필리핀 비치를 처음으로 함께한 사람이 가족들이라서 더 행복했던!

김. 카일. 케이트. 이싱과 함께한 수영!

하루가 지날수록 한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는 관계.

비치를 갔다가 잠을 자고 김의 손짓에 자연스럽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을 시작했다

김만 아는 아름다운 길을 소개시켜주고 한편의 그림같은 마을 깊은 곳까지 보여주었다

눈을 감고 손으로 바람을 느끼며! 행복을 또 한번 크게 느끼며.

김과 길거리음식도 먹고 농담삼아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들이었다면 가족이 되고 나니 편하게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첫날부터 반겨주시고 안아주셨던 김의 할머니!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 할머니와 인생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늘 저녁은 김과 찢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의 삶을 들으면서 김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었다 코디가 이닌 친구로의 김!

고마워 친구! 다행이야 너를 만나서!







## 아피하우스로 돌아오는 날.

어젯밤부터 사실 헤어진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시 볼 수 있지만 헤어짐은 헤어짐이기에.

나는 아직 헤어짐에 익숙치 않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와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돌아가야됨을 느꼈다. 3박4일은 나에게 귀한 시간이었다.

일분 일초가 너무 소중한 매 순간 너무 뜨거운 코코아처럼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말하는 순간 입 밖으로 쉽게 꺼내버리면 다 날라갈 것 같아서.  
소중하고 포근했던 느낌. 조금 더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으로만 기억들을 되짚어보며  
마음을 토닥인다.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한 선물일까?

나의 집. 나의 부모님. 언니. 동생들. 할머니. 친척들  
따뜻의 공기 밤 냄새 사람냄새가 그리웠던 나

황홀한 음식과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홈스테이.

언어의 장벽을 깬다는건 쉬운거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어가 통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소통의 어려움은 더 클 것 같더라고 생각을 했던 나

사람의 관계는 언어가 아닌 마음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 사람을 공감한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사람답게  
다가간다는 것. 선물처럼 다가왔던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3박4일동안 뜨겁도록 느낀 관계의 따뜻함이었다.

아이나 자이나 강아지들도 보고싶고 가족이 그리운 밤.



















사랑해요! ♥







사랑하는 음식이여  
너는 나의 햇살이오 뱃살이오. 내 허벅지 노라  
햇(뱃)살 지원이라 불러다오.  
행복했던 3박4일 홈스테이 끝!







산타크루즈





우리는 활동 마지막으로 나중에 한 달간 홈스테이를 하게 될 **산타크루즈**를 방문했다.  
각자 누가 어떤 가족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의 가족이 되어줄 가족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갈 때 까지 손 흔들어 주시는 정 많은 이곳에서의 홈스테이가 기대된다.

산타크루즈의 방문은 아름다운 풍경에 처음 매료되었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강, 깨끗한 마을의 모습에 놀랐다.  
강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 어른들의 모습에 같이 강에 뛰어들고 싶었고,  
평화롭고 평안한 분위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했다.





# BANGUS FESTIVEL





## **B**ANGUS FESTIVAL은 팜가시안 다구판의 가장 큰 연간 축제

방구스의 (방구스;생선) 가장 큰 생산지인 다구판 방구스(milkfish) 산업과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필리핀에서 유명한 축제이다.

Bangus Festival은 4월 6일~5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되는 긴 축제이다. 축제기간에는 마켓에 스트리트푸드 음식점과 각종 다양한 상점들이 많이 들어 오게 되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는 방구스 축제에서 크게 Gilon Gilon ed Baley, BANGUSINE,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즐겨볼 수 있었다.





**G**ilon Gilon ed Baley 는 각 곳의 방구스를 표현하는 거리퍼레이드이다.

우리의 활동지인 푸가로에서도 Gilon gilon을 연습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컬러풀한 의상과 절도있는 춤, 웅장한 음악소리와 함께 다구판이 들썩이다 한바탕 소나기가 내려 멈출 줄 알았던 것이 이슬비를 맞으며 다시 시작됐다.

**GATN(GLOBAL ALTERNATIVE TOURISM NETWORK)**기간 동안 필리핀 각 지역의 YMCA 봉사자들이 팡가시난Y에 모이게 되었다. 각 지역의 Y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처럼 팡가시난의 방구스축제가 처음인 친구들도 함께 Gilon gilon을 즐겼다. 밤의 프라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축제를 즐기러 나온 덤프사이트 친구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큰 축제임을 느낄 수 있었다.



히히 좋다아~





# BANGUSINE

2015.04.27





# BANGUSINE

2015.04.27 오후 4:00 프라자에서 BANGUSINE이 열렸다.

BANGUSINE은 팡가시난 다구판의 특산물인 방구스(생선)를 이용한 푸드페스티벌로 우리는 한국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각 부스 별로 300인분의 핑거푸드를 준비했고, 우리는 방구스 조림과 비빔밥, 김밥을 선보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준비한 음식이 모자랐다. 부스가 떠들썩하게 분주했고, 부스 사방을 사람들이 감싸 모두 하나같이 손을 뻗어 음식을 달라고 하는 모습에 모두 같이 보람된 힘을 느꼈다.

방구신이 모두 끝나고 Y식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알듯 모르겠는 무언가를 느끼며 마무리 되었다.



**BANGUS JOLIM**



**BANGUS BIBIMBAB**



**BANGUS KIMBAB**





## BANGUSINE을 준비하기 까지

비빔밥의 핵심인 고추장을 찾아 나서며 갔던 로빈슨. 3월 마지막날 우리끼리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여먹으며 좋아하던 우리였는데 이렇게 많은 한국제품이 있을 줄이야 심지어 참기름까지 찾아내 깜짝 놀랐던 우리들.

방구신을 준비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려는 모습이 빛났다. 가장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건 정말 많은 방구스 뼈를 다같이 둘러앉아 바르고 같이 장을 보고 요리했던 기억일 것이다. 누구 한 명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돕던 우리.



다들 처음 해보는 것들 투성이여서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움이 더 컸다.

방구신을 준비하며 Y와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우리끼리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JUANA

'적당히'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적당히 즐거웠고, 적당히 부담과 속상했다고.

하지만 한국음식에 관심 가져주시고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했다.

처음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티셔츠를 제작하고 부스를 꾸미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JUAN

준비하는 기간 내내 힘들고 부담되었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져준 필리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우리 y스텝들 모두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다~ 감사합니다!!!



SITA

나의 한계를 느끼며 정신 없이 달려왔고 막상 방구신날이 되자 안도감이 들었다.

당일 날 Y봉사자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고, 나에게 힘이 되고 든든했다. 힘이 들지만 우리를 돕는 거라 힘이 들지 않다고 말하는 친구,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살라핑가오 친구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주던 꾸야. 그리고 가장 고마운 우리 팀

방구신은 내게 힘겹기도 즐겁기도 했던 우여곡절이 넘쳤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SANTIAGO

즐겁지 만은 않았다. Y식구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며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속이 시원했다. 축제보다 함께 일을 하며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했다. 어쨌든 우리끼리였다면 해내지 못할 축제였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Y식구들에게 감사하다.





**BANGUSINE 2015.04.27**





BANGUSINE 2015.04.27





# 그 외 아띠이야기





# 1. 만우절 (April Fool's Day)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에이프릴풀스데이(April Fools' Day)'라고도 하며 이날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 바보(April fool)' 또는 '푸아송 다브리(Poisson d'avril)'이라고 부른다.

: 지난 3월 코디들의 수많은 장난에 넘어간 순수한 4명의 양들. 4명의 양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우절기념 장난을 기획하는데.. 남주인공: 권준성 단원  
간호사:채지원 조연: 박찬수 친구: 임수정

남주인공 권준성 단원이 파를 썰다 팔이 베였다.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지고 간호사 채지원 단원은 응급처치에 들어간다. 친구 임수정 단원과 조연 박찬수 단원은 이러한 상황을 코디들에게 알리러 간다.

권준성 단원의 불꽃 같은 연기력에 다들 감탄을 하였으며, kuya jimmy까지 달려와 걱정해주셨다. 우리의 첫 번째 장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Happy Birthday~~

## 2. 꾸야지미 생일

4월 12일 팡가시난 ymca 아버지; kuya jimmy의 생신을 맞이했다.  
팡가시난 팀은 꾸야 지미를 위한 생일축하영상을 만들었다.

엄청난 인맥의 사람들이 모여 축하한 jimmy의 생일파티!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Masarap~~





4월 테마

"Salamat po"

전하기 ♥

### 3. 4월 달테마 ; salamat po 전하기

Salamat po는 따갈로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

임수정단원의 4월 달테마는 살라맛뽀 전하기로 4월 한 달 동안 매일 회의를 끝마치고 하루를 함께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서로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현에 서툴고 서로에게 조금은 어색했던 관계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고 고마움을 말하기가 처음엔 어려웠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은 사탕을 문드린 달콤한 말들을 한다.

단원들의 동의 하에 5월 역시 살라맛뽀를하기로 하였다. 5월에는 박찬수 단원의 마사랍; masarap '맛있다'라는 표현의 달테마로 일주일 2번 회의를 밖에서 진행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팀원들과 즐거운 추억을 더 남기고 싶다는 박찬수 단원의 기쁜 생각이 돋보인다.





## 4. Separate

; 1. 분리된, 따로 떨어진, 독립된 2. 서로 다른, 별개의, 관련 없는 3. 분리되다, 나뉘다

4월을 맞아 팡팀 4명의 단원이 코디들의 도움 없이 살아 가는 날을 맞이했다.

아침·점심·저녁 매 끼니를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먹는다. 하루가 삼시세끼 챙겨먹다가 끝나는 것 같아 정신 없지만 서로 밥해먹는 재미를 알아가는 팡팀.

야무지게 요리를 척척하는 임수정단원, 아무거나 때려넣는 권준성단원, 조연처럼 서포트를 해주는 박찬수단원, 심부름과 도와주려 노력하는 채지원단원.

역할을 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살고 있는 팡팀.





에세이





# JUAN

4월은 '하루'를 다 느껴보지 못한 채 '내일'을 맞이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필리핀 속에, 활동 속에, 그리고 우리 팀 속에 어느새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난 이곳에서 매일 화나기도, 분노하기도, 행복하기도, 답답하기도, 짜증나기도 했다.

한국에 있을 때 왜 난 인생을 아니 하루를 즐기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했었다.

왜일까? 라는 고민을 할 때쯤 문득 생각난 답!!!

행복한 감정 만이 하루를 온전히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정답을 찾아주었다. 이런 감정들을 잘 느끼는 것이! 그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수많은 질문 들을 반복한다. 나 여기 왜 왔어? 나 여기서 모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건가?

더.. 느끼고 싶다. 더... 즐기고 싶다.



# JUANA

**안녕!**

순간을 소중히, 하루를 소중히, 그래서, 내 인생을 소중히.

#순간을 소중히

**내** 이름 Juana(우아나)로 살아 간지 두 달이 지났다.  
천천히 가기만을 바랬던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  
지난 4월.

빠른 시간 속에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작은 것 하나에도 집중하며 살아간다.  
가끔은 수많은 감정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둥거리며 보내는 시간들이 있다.  
사소한 감정에 그 순간 빠져버려 힘들어하는 모습이 답답했고  
혼자 끄끙 앓았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싶었다.  
나는 요즘 기쁜 일에 미친듯이 기쁠 때, 너무 숨막히게 즐거운 일에 가슴이 떨  
때, 입이 끈악하고 벌어질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에 날 필 때, 짜증나고 사소한 것에 으르렁 마음이 싸울 때 숨  
기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나한테 나 자신이 맞서기 위해 노력하며 여전히  
노력 중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하고 싶다.





**언**제나 하루의 아침과 끝을 사람과 사람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우리들. 우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해진  
지난 4월.

#하루를 소중히(너를 소중히)

**언**제나 하루의 아침과 끝을 사람과 사람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우리들.  
우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해진 지난 4월이다.  
4월의 시작을 3박4일간 홈스테이로 시작했고 방우스 축제에  
참가해 준비했던 지난 시간들.  
함께 사람을 만나러 갔던 덤프사이트, 푸가로, 살라핑가오 그리  
고 함께 먹은 음식과 나눈 이야기들.  
함께라는 말은 참 간단한 말인데 그 속에 뭐가 그리 고민이  
많았던지.  
기쁜 일에 미친듯이 기뻐할 때, 옆에서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일까. 내가 너무 숨막히게 즐거운 일  
에 가슴이 찢릴 때, 옆에서 함께 심박수를 나눠가지며 비명을  
질러줄 사람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일까. 내가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풍경과, 입이 끈악하고 벌어질 만큼 맛난 세계  
의 진미 음식을 발견했을 때. 그 장소를 함께 즐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감동에 날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시장에서 바나나아저씨와 친해지고  
옆집 이웃과 매일 아침 인사하며 매번 걷는 길과 매주 보는  
아이들과 매일 보는 y친구들과 사람들.  
내가 사는 한국처럼 이 마을에 이 사람들에게 정이 들고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같구나 라고 느껴지는 요즘.  
정이 존재해서 정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아플까봐 벌써  
부터 겁이난다  
매 순간 행복하거나 좋을 순 없지만 그 속에 행복을 찾는다

함께 조금 더  
사랑하며 웃고 즐기며 하루를 소중히, 너를 소중히.  
그래서, 내 인생을 소중히.



# CONCHITA

앞으로 더 다가가 더 친밀하게  
“소중한 이 시간이 후회 남지 않도록 살고 싶다”

점점 시간이 가며 나에게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정말 온전히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필리핀이 오기 전부터 내가 원했던 것.  
외부 환경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시간이 진짜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 평화롭기 만한 이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나의 삶에 이 순간들이 어떻게 다시 떠오를지 기대되고,  
4월 한 달은 나와 마주했던 시간들이었다.





# SANTIAGO



깜!빱! 깜!빱! 거리는 커서가 나를 재촉한다. 어서 손가락을 움직여 무엇이랴도 써내려 가라고, 머리를 굴려 4월의 감정을 이끌어내라고 나를 채근한다. 흠 특별히 쓸 말도 기억나는 말도 없는데..

4월 한달 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익숙함, 단순함** 짬 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시계도 알람도 없이 일어나야 할 때쯤이면 눈이 떠진다. 졸린 눈을 체 뜨기도 전에 옆에서 자고 있는 형을 한번 보고 일어난다. 서로 간단히 헛소리 한마디씩(졸린 기운에 기억 할 수 없는 말들)을 주고 받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시장으로 향한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강렬한 필리핀의 태양 속에 하루가 간다.

하루가 단순하다. 그래 단순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난 이 단순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수 있는 반딧살의 퍽퍽한 달콤함에 감탄하고, 한국 돈으로 100원 남짓한 부코 주스가 목구멍에 넘어 갈 때면 시원함과 행복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쾌감? 마저 느낀다. 머리는 대충 넘겨서 모자로 가리고 옷은 라온아띠 티셔츠만 입으며 긴 바지와 운동화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아편하다 정말..)

그래도 아직 까진 행복하단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좋다, 좋았다, 좋았음 이란 표현으로 대체 하고 싶다.

4월 한달 간 기쁜 일, 화나는 일, 정말 화나는 일, 정~말~정~말~정~말~ 화난 일 많았지만 모든 일 돌아보니 좋았고 즐거웠다.  
또한 이런 다양한 감정을 즐길 줄 아는 내 자신도 대견했다.

4월 역시 분노, 행복,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들을 한아름 내 품에 던져준 Y식구들과 우리 단원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다.

시간의 가속도가 붙고 있음이 느껴진다. 아쉽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으니 즐겨야지. 남은 시간도 다양한 감정,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 더운 여름 날 즐기다 가야지.





**SALAMAT PO ❤️**





아..350ppm해야 하는데..

뽀나스 샷~~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호잇호이

뽀나스 샷~~



이건 경쟁 이라구!!!





숨은 빵잇 찾기



불쌍한 나무..